사회복지시설 탐방 ①

사랑의 빛 宣敎會 '해뜨는 집'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지는 포천의 사회복지시설을 탐방, 이들 시설의 운영방침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획으로 『사회복지시설 탐방』을 연재키로 했다. 포천시의 10곳의 신고시설과 16곳의 조건부신고시설의 원장 및 봉사자들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나갈 방향과 시설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할 역할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장애를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조기교육 및 보호시설 해뜨는집. (원안은 박진수 원장)

1999년 10월에 개소한 신북면의 사랑의 빛 선교회 '해뜨는 집(원장 박진수)'에는 9명의 장애아동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며 지내고 있다. 해뜨는 집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박진수(41·사진) 원장 스스로가 뇌병변이라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스스로가 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장애인의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시설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해뜨는 집은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과 주간보호만을 목적으로 최초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장애아동들이 입소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재택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해뜨는 집의 교사인 차귀례(43)씨는 "장애아동들은 학습이 가능해야만 입소시킨다"며 "조금 늦더라도 학습을 통해 세상살이의 방법을 습득시켜 주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또 차 씨는 "여기에 맡겨지는 장애아동들은 통학이 불가능하거나 부모들의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9명의 장애아동 중 2명만 통학하며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뜨는 집은 조건부 신고 시설로 분류되어 국가에서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는 250여 만원의 후원금과 장애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올 7월경에 조건부시설로 등록 될 것 같다"며 "조건부 시설이 되면 운영비의 80%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봉사자들의 방문에 관해 묻자 박 원장은 "많이 올수록 좋고, 오는 것 자체가 고맙다"며 "하지만 후원을 오시는 분들은 장애아동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챙겨주셨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여건 때문에의·식생활자체가 일반인들과는 틀리기 때문이다.

또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방문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찾길 바란다"며 "일반봉사자라도 꾸준히 방문하고 노력한다면 전문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장애인들도 밖으로 나가서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장애인을 대하는 선입관도 없어질 것이며,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고 강조했다.

후원:농협 175-02-097249(예금주:박진수)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현직 법원장 카페운영 화제

임희동 포천 · 철원법원장 카페 '행복한가?'

현직 법원장이 다음카페를 운영하며 가족과 동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원안은 임희동 포천·철원법원장)

현직 법원장이 다음카페를 운영하며 가족과 동료,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임희동(사진) 포천·철원 법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인터넷 다음 카페 '행복한가?'를 개설해 가족과 친지는 물론 포천관내 기관단체장들과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임 법원장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탈을 쓰고 이 세상에 나와서 별의 별 짓을 다하고 별의 별 꼴을 다 보고 때론 웃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통을 받으면서 울고 헤맨다. 이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서 헤매는 것 아닐까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서 이 행복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근본에 대한 가르침 종교가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불행한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행복한가라고 자문자답하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컴맹이 이 카페를 만들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여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복한가? 카페(http://cafe.daum.net/happyOK)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찌하면 행복할까? ▶행복찾기(부 보다 지족자족, 지위 보다 깨달음을) ▶왜 불행한가? ▶불행극복비결 ▶죽으면 그만인가? ▶지금!!! 행복을.... ▶내가 느끼는 작은 행복들 ▶나의 유머, 나의 장기 ▶행복을 노래하는 시 ▶심금을 울리는 좋은 글 ▶행복을 위한 명상. 참선.기도의 글을..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카페를 통해 오늘날 삶의 현장에서 쉽게 잊고 살아가는 '행복의 요소'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 터 뷰 박종구 새마을문고경기도포천시시부 회장

"독서문화 運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박 종 구 회장

대통령표창 수상

독서문화운동전개, 의식개혁운동, 내고장활력화운동, 환경개선운동 등에 앞장섰던 새마을문고경기도 포천시지부 박종구(56·사진)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계자들은 "새마을 문고의 수상은 새마을 운동 전체적으로 볼 때 드문 일이다"며 수상을 축하해주고 있다.

구랍 8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대통령표창과 훈장을 수상한 박종구 회장을 만났다.

"5년째 접어든 새마을문고 생활 중 가장 영광스런 일이다"며 "더욱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979년과 2001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는 박 회장.

경북중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가산면 가산리 새마을 지도자가 되면서 18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

박 회장이 새마을문고를 맡게된 것은 지난 2001년부터이다.

"현재 이동문고 차량은 약 4천여권의 책을 싣고 다니면서 관내 1만5천여명의 회원들에게 도서를 공급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포천에는 독서인구 및 독서문화가 미흡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박 회장은 "임기내에 단위문고를 육성해 도서보급과 저변확대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며 2005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차량의 보유대수와 각 읍·면·동 방문회수를 점차적으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이동도서관은 14개 읍·면·동을 년간 288회 순회하며, 1만5천114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도리돌 동장군 축제

포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합니다

행사기간 중 400여명의 봉사자 지원

도리돌동장군축제조직위원회(추진위원장 송영현)와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이동면 면민회관에서 2005 도리돌 동장군 축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도리돌동장군축제조직위원회(추진위원장 송영현)와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이동면 면민회관에서 2005 도리돌 동장군 축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원과 양윤삼 이동면장, 김영자 포천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 32개 단체의 자원봉사자 9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은 동장군 축제를 체계적이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원봉사단 발대식은 성운기획실장이 도리돌 동장군 축제를 추진하게 된 경과보고 실시했고 내빈들의 격려사, 봉사대 단복지급, 자원봉사자 선서, 축제 준비상황 보고 및 교육, 현장 답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송영현 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행사 기간 중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했었다"며 "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의 도움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합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훈 포천시의회의원은 격려사에서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천 이미지제고, 민관군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며 "발대식을 통해 대회의 성공을 다짐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 간단한 현장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대는 축제기간인 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에 걸쳐 1일 30명씩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은 ▶송어얼음낚시 ▲전통얼음썰매와 개썰매 체험 ▲겨울민속놀이 ▲눈썰매장 등에서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장애인 양부모를 친부모처럼 16年 봉양

육군 오뚜기부대 김용식 상사의 특별한 인연

생면부지의 장애인 노부부를 16년째 친부모처럼 모시고 있는 현역 육군 상사가 있어 훈훈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육군 오뚜기부대 본부대 독신자 숙소 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식(44) 상사.

시각과 언어 장애가 있는 김진호(70) 할아버지, 언어장애와 양다리가 불편한 양순이(71) 할머니와 김 상사와의 인연은 지난 88년부터다.

당시 유격대 교관이었던 김 상사는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작전지역을 정찰하던 중 지역내에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김씨 부부를 알게 되었다.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이들 부부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던 김 상사는 그 날 이후, 일과 후 틈나는 데로 쌀과 고기, 옷가지 등을 전달하고 말벗도 해주며 친부모처럼 지내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 상사의 아내(한영자·40세)와 미혜와 재광 등 자녀들도 이들 노부부와 아버지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친부모 이상으로 돌보고 따랐다.

힘들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이들 노부부에게 뜻하지 않는 시련이 닥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양순이 할머니가 걷는 것은 물론이고, 일어섰다 앉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수술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늙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상사가 펄쩍뛰며 싫다는 할머니를 억지로 지역 내 성 베드로 병원에 입원시켜 무릎 관절수술을 받게 해 줬다. 또 할머니의 건강상태를 상담하기 위해 병원의 원장(윤강준·44세)을 찾았다가 윤 원장이 예전에 김상사가 유격장 교관으로 있을 때 교관과 교육생으로 만난 적이 있었던 군의관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평소 김상사의 효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윤 원장도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김 상사의 수술비가 많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던 할머니는 병원에서 무료로 해주었다는 말에 그제서야 안심하며, 병상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업혀 병원을 찾았던 할머니는 입원한지 15일, 수술 3일만에 웃으며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 / 향 / 생 / 각

어느 겨울방학

조 귀 순 (가산면 우금리 출생, 수필가)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 댁에 갔다. 농사일이 없던 겨울방학에 더 자주 갔던 것 같다. 차편이 없어 십리 길을 걸어 다녔다. 한길을 따라 말미로 가면 빵 돌아서 가는 거라했다. 그래서 괸돌에서 돌모루로 건너가 소랭이 길로 가로질러 나갔다.

소나무가 우거진 소랭이 길에 들어서니 갑자기 쐐-엥~소리와 쒸익~하는 휘파람소리가 들렸다.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데 바람소리만 요란하니 등골이 오싹해온다.

"야아~ 호랭이 발자국이다!"

흰눈위의 정말 큰개의 발자국을 보고 언니가 소리쳤다. 잔뜩 겁을 먹어 어머니 손을 더욱 꼬옥 잡아 땀이 촉촉이 베어났다.

두껍바위(방축1리)에 도착해서야 겨우 한숨을 돌렸다. 거리장에 이르러 한길에 나오니 녹다만 눈이 얼어붙어 맨질맨질 하였다. 어머니는 넘어지실까 옹숭거리고 종종 걸음을 치셨다. 그러나 소랭이길에서 잔뜩 움츠렸던 때와 달리 언니와 나는 쭈욱쭉 미끄럼을 탔다.

솔모루에서 회색 완행버스를 탔다. 차장은 차문에 한발만 설핏 올려놓고 차를 탕탕! 두 번치고는 "오라이~~" 라고 소리치며 매달리다시피 올라탔다. 의정부로 가 다시 벳고개 가는 버스를 타고 반시간은 족히 걸어 오목이고개를 넘어가야 한단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니 어느덧 해가 뉘엇 뉘엇 넘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아침을 드시고 사나흘 후쯤 데리러 오겠다면서 집으로 가셨다. 외삼촌이랑 놀고 있으라며 엄마와 함께 나가셨던 외할머니께서 모자가 달린 빨간 나일론잠바와 고리땡(골덴)바지를 사오셨다. 너무 좋아서 몇 번을 입었다 벗었다 요신을 떨었다.

"넌 할미 심심한데 여기 살자. 양말허구 털장화두 사주마."

외할머니의 말씀에 신이 나서 잘 놀았다. 아랫집 친구에게 옷 자랑도 하고 한중 고개로 요소포대 들고 미끄럼 타러 갈 때는 털장화도 신고 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튿날이 되자 낮에는 그럭저럭 잘 놀았는데 해가 지고 어둑어둑 해지니 자꾸만 집 생각이 났다.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니 줄줄 흘렀다. 잠바고 털장화고 다 버리고 엄마한테 가고 싶었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할머니께서 땡땡이(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사주었을 때도 그랬다. 언니는 감자를 캐라고 하던지 소죽을 끓이라든지 아버지가 시키시는 심부름을 하지 않아도 되니 더 놀다 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다고 칭얼거렸다.

"앞으로 또 그러면 다시는 데리고 다니지 않을거야." 라고 하면서 언니는 할 수 없이 집으로 왔다.

그 생각이 떠올라 무쇠솥에서 밥을 푸고 계신 할머니에게로 갔다.

"할머니, 집에 갈래요"

"이젠 캄캄해 못가. 한밤 자구 가자. 내일 낮에 벽시계가 땡땡- 두 번 치면 어멈 올 거야"

"그치만 우리 집엔 저런 시계 없어서 엄만 못 듣잖아요."

여기서 치는 소리도 엄마는 다 들을 수 있다며 할머니는 나를 달래 저녁을 먹여 재웠다. 그러나 얼마만큼 자다 일어나 소변을 보고 자려하니 괘종시계의 "똑-딱" 거리는 소리가 자꾸만 귀에 거슬렸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면 할수록 시계바늘이 기어와 내 귓바퀴에 붙은 것처럼 점점 크게 들렸다. 누렁이가 컹컹 짖어 대는 소리가 차라리 덜 시끄러웠다. 집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 낯설기만 하였다. 겨우 잠이 들려고 했는데 이번엔 땡.땡 땡. 쳐 대는 종소리에 또 잠이 깼다. 참다못해 자는 언니의 옆구리를 쿡쿡 건드렸다.

"왜, 오줌마려?"

언니가 잠에 취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언니이, 집에 가구 싶어"

"알았어. 내일 가자 언니가 데리고 갈게."

언니는 내손을 꼬옥 잡아 주더니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다. 시계는 언제나 두 번을 칠까 물어보았더니 큰바늘이 빨리 빨리 가야한다고 하였다.

"잘 놀다가야지, 할머니가 잠바도 사주셨는데…."

언니는 잠을 깨웠는데도 신경질도 내지 않고 가만가만 대답해 주었다. 몽당연필이나 책받침을 가지고 또, 소꿉장난을 하다가도 서로 욕심을 부리며 빼앗고 싸웠던 언니가 엄마 같았다. 이내 잠이 드는지 가슴을 두드리던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소리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저 시계만 없으면 엄마는 아무 때나 올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식물 기르기 ②

정 선 교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가산지부장 ·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플라워디자인 최고지도자과정 전임강사

관상용으로 으뜸인 소철은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주로 만날 수 있다. 원산지는 열대 지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철은 잘 자라는 식물이다. 여름이 생육기라서 여름에 새순이 나온다.

새로 나온 잎이 완전이 굳어질 때 먼저 잎을 잘라주면 언제나 아름다운 소철 자태를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소철이 철분을 좋아 한다는 것이다. 소철을 기르고 계신다면 새해 선물로 굵은 못 하나를 뿌리 부분에 꽂아두자. 그러면 소철은 보답으로 살아있는 화석처럼 푸르름을 뽐내 줄 것이다.

물주기는 3~4일 간격으로 주고 흙이 건조되었을 때 주도록 하자. 주 1회 정도는 미지근한 물로 살수해주면 소철 기르기는 성공적이다.

꽃을 선물해야 할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꽃은 아마도 꽃 중에 으뜸인 장미일 것이다. 장미는 여성에게 비유되기도 한다.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다른 모든 꽃들을 무색하게 한다.

장미의 꽃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애정, 행복한 사랑 등 여성에게 주는 최고의 꽃이다.

독일 쾰른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교수님 댁에서 저녁초대를 해주셨다. 선물준비도 못해 고민하다가 장미 몇 송이로 동양 꽃꽂이 선을 살려서 자그마하게 작품을 준비했고 교수님 댁에 들어서자 가족들의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던 모습으로 어느 선물에 뒤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여성이라면 단 한 송이에도 감격하는 장미. 장미의 싱싱함을 오래 유지하려면 물에 살균제를 조금 떨어트리자. 또 봉우리를 피우려면 당분을 물에 첨가해 보자. 그러면 활짝 핀 장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